

# 체감물가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요즘 고깃집에 가면 상추, 깻잎 등 야채 인심이 박하다. 아예 조금 내놓거나 넉넉히 주더라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진 않는다. 야채 값이 올라 아쩔 수 없다는 게 주인장의 설명이다. 깻잎 한 장이 100원이란 소리까지 나온다.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 목표치(2.0%)에 근접해 기준금리가 인하(3.50%→3.25%)됐지만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한은이 내놓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125.81)는 한달 전과 비교해 5.3% 상승했다. 지수 기준으로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다. 부문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 전월 대비 5.7%나 상승했다. 배추는 61.0%나 급등했다. 토마토 51.1%, 상추도 44.7%나 뛰었다.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돼지고기(16.1%), 쇠고기(11.1%)를 중심으로 8.2%나 상승했다.

밥상물가가 오르니 여기저기 아우성이 다. 야채값이 오르면서 '금치', '금추'란 말이 나온다.

'기후인플레이션(기후변화에 따른 물가 상승)', '런치플레이션(점심값 상승)', '피

시플레이션(생선값 상승)', '애그플레이션(농산물 등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등 신조어가 새롭지 않은 시대다. 일반 식당에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1인분 1만원이 보통이다. 직장인들은 가성비 좋은 맛집을 찾기 바쁘다. 젊은층은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끼니를 대신하기도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주거 등의 물가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수입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품목을 다양화하고, 교육제도 등을 통해 주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며 "물가 수준을 낮춰야 한은의 신뢰성도 커지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구조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앵겔지수(생계비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 상승은 서민에게 재앙이다. 식료품비 지출이 늘어나면 생활고를 피할 수 없다. 외식 산업 또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음식점들은 식재료 비용 인상을 소비자에

게 전가 시킬 가능성이 높다. 신선식품과 연동되는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가격도 도미노 처럼 오를 우려가 있다.

물가상승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의 경우 원료값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다. 가격 경쟁력도 떨어져 수출 부진으로 이어진다. 물류비용도 크게 늘어나 해운, 항공 등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 식당은 물론 요식·숙박·여행업, 레저 스포츠 등 연관 산업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랄땐 물을 사먹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10년, 20년 후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돈 쓸 일은 많아지고, 또 비싸지고 있다. 그러니 소비를 줄인다. 두 벌 사던 옷은 한 벌을 산다.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먹는다. 내수(소비+투자)가 위축되는 이유다. 내수가 위축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다. 대기업이 투자를 줄이니 중견기업은 더 어려워진다. 우리나라 경제가 쪼그라드는 이유다. 경제성장률 연 2.0% 시대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농수산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생산·유통을 데이터화해 관리해야 한다. 핵심 수출품목도 늘려야 한다. 수년이 걸려도 가야 할 길이다. 잠재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전망이 밝아야 기업이든 가정이든 지갑을 연다.

/김용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 “델리 오픈런 하려고요”



**김지수**  
최 빛나  
(유통&라이프부)

"한끼에 3990원이면 가성비로는 최고죠." "통닭 한마리에 7990원이면 끝입니다."

지난 주말 오전에 한 대형마트를 갔다가 델리코너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이다. 아침부터 델리코너가 북적였다. 재미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북적이나 가봤더니 갖나온 따끈따끈한 볶음밥을 장바구니에 넣기 위해서였다.

많은 소비자들이 3990원짜리 델리 제품들을 여러 개 쓸어 담고 있는 진풍경이었다. 종류도 다양했다. 치킨, 김밥, 튀김 등

전통적인 델리 메뉴뿐 아니라 표고탕수, 치즈볼, 타코야끼, 맥앤치즈, 케이크 등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매장을 오픈한지 단 30분 만에 매대는 텅텅 비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50대 여성은 "맛있는 델리 사려고 오픈런했다. 요즘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서 델리 몇 개 사서 주말 기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랜드 김스클럽 등 대형마트 4사의 델리 제품을 취재하면서 제품 경쟁력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체감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마트 델리는 매장이 문 닫기 직전 마감 할인 스티커가 붙었을 때 가끔 사먹는 제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의 마트 델리 메뉴는 가짓수와 맛 품질이 확연히 달라졌다. 200여종이 넘는 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조리해 선보이

는가 하면 치킨, 김밥 등 뻔한 메뉴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의 요리로 범위를 넓혔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에게 왜 델리 제품을 강화했는지 묻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서다.

두 번째는 'e커머스 차별화시킬 수 있어서'였다. 델리는 당일 조리·판매가 원칙인 특성상 e커머스가 유통하기 어려운 분야다.

예전의 마트 델리가 아니다. 가성비뿐 아니라 완성도 높은 델리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소비자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장보기에 딸려오는 메뉴가 아닌, 그 자체로 사람들이 마트에 오도록 만든 매력적인 '한 끼 플랫폼'으로 바뀌었다.

/vitna@

오늘의 운세 10월 25일 (음 9월 23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서글프다. **48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않는다. **60년생** 동쪽으로 가면 다투게 된다. **72년생** 노후대비는 젊어서부터이니 장기적 자금계획을 세우자. **84년생** 우선 한 걸음부터 떼고 보라.
- 37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얻는다. **49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자금계획을 살펴보자. **61년생** 자포자기(自暴自棄)가 위험. **73년생** 도모하던 목표가 틀어져도 다시 세워서 일어난다. **85년생**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단조로운 하루.
- 38년생** 갈 길은 아직 멀다. **50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62년생** 가장 큰 해결점은 상대보다 성공하는 것. **74년생** 미(美)의 관점과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니 과한 성형은 신중히. **86년생** 주변에 봉사하는 일이 생김.
- 39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51년생** 우물에서 송눈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63년생** 후배와의 갈등이 생기니 주의. **75년생** 내일을 위해 되풀이하여 오늘 뛰자. **87년생** 도와주고 있는 상대에게 큰 기대는 마라.
- 40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다음날로. **52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깊이 생각하자. **64년생** 오늘 준비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 **76년생** 흐르는 물처럼 일이 해결되니 차분하게. **88년생**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니 힘내자.
- 41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별로 없더라. **53년생**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65년생** 사소한 실수로 일이 틀어질 수 있다. **77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연으로 상승하는 축복이. **89년생** 현상 유지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니 겸손을.
- 42년생**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할 만한 날. **54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한들 누가 봐 주겠는가. **66년생** 지금 이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자. **78년생** 오년부터 열매를 수확하는 이득이 많은 날. **90년생** 외출할 때 계단 조심.
- 43년생** 소피를 만나 새로운 소식을 얻어 일이 해결. **55년생** 소금장사 나가는 데 비오는 격. **67년생** 협상에서 밀리니 마음이 우울하다. **79년생** 이직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 **91년생** 만나서 즐거움도 있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도 있다.
- 44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 **56년생**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68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는 행동할 때. **80년생** 자고 나면 집안이 뛰어도 실망 말자. **92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쉬었다 가자.
- 45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57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69년생** 기다려보라 서북쪽에서 귀인이 온다. **81년생** 다정도 병이니 배우자에게 지나친 간섭은 피하도록. **93년생** 노력의 결과는 우공야산(愚公移山).
- 46년생** 재물을 사랑하며 사는 것도 큰 행복이다. **58년생** 이사해서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될 것이다. **70년생** 인생은 결국 혼자. **82년생** 이별에 미련을 두지 말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자. **94년생** 내가 편안해야 집안이 편해진다.
- 47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다. **59년생** 오늘 결재할 일을 미뤄도 무방하다. **71년생** 사랑에는 언제나 약간의 망상이 담겨있는데. **83년생** 겨울이 가면 봄이 오기 마련이니 기다리자. **95년생** 닭에게 쫓이는 현상이니 양보의 미덕으로.



## 김상회의四季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기도는 어렵거나 행운이 함께할 때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도 혼자 힘으로 넘어서기 힘든 상황에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한다. 흔히 생각하듯 두 손을 모으거나 눈물을 글썽이며 특정한 모습이 되어야만 기도인 것은 아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빌거나 명상하듯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도 기도다. 입술을 조금 움직이며 조용한 목소리로 빌고 싶은 내용을 혼자 말해보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간절하게 기도하다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또 달라진다. 언제 그랬냐는 듯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에서 중요한 건 간절한 마음과 정성 그리고 꾸준함이다. 일반적으로 간절한 마음과 정성의 중요성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런데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른다. 기도는 일상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질 때 큰 가피를 받을 수 있다. 기도의 효험을 보려면 정성 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절을 찾아 착실히 기도하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절에서 기도하던 마음이 집에서도 이어져야 하는데 단절이 생긴다. 불가에서는 기도의 생활화를 강조한다. 원하는 만큼의 가피를 얻으려면 꾸준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의 기도는 어렵지 않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비는 것도 기도다. 차분히 앉아서 원하는 무언가를 나직하게 말해보는 것도 기도다. 기도하는 이유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생각지도 못한 역경이 닥쳐왔을 때 기도는 기적 같은 해법을 제시해준다.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필자가 주석하는 월광사에 찾아오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얽힌 매듭을 풀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일상의 습관처럼 꾸준히 지속하는 기도는 언제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3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64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 365 0

스도쿠 365 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9	2			7	8
4			6			5	9	
7				6				3
		1	3		9	8		
	9			8				2
	4	6			2			5
9	7			5	1			4

3				6	1		5	
	2		4				6	
8	5		7		4			
7							5	
		8				9		
	4						6	
		2		3		8		1
5				9			3	
9		3	1					7

9	7	8	1	9	8	2	4	6
6	2	4	9	6	7	8	1	9
9	8	1	2	6	4	9	7	8
2	9	7	4	8	1	6	6	9
4	9	8	6	7	8	1	9	2
1	6	6	9	9	2	7	8	4
8	6	9	8	1	9	4	2	7
7	1	2	8	4	9	6	9	8
8	4	9	7	2	6	9	8	1